

라캉 정신분석의 주이상스와 초자아 개념에 의한 지리교육의 ‘갈등’ 주제에 대한 분석

김미혜*

Analysis of the Theme of ‘Conflict’ in Geography Educ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Jouissance and Superego in Lacan’s Psychoanalysis

Mihye Kim*

요약 : 본 논문은 인간의 정신적 행위자중 하나인 초자아가 음험한 주이상스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타자와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 간의 갈등의 원인을 주이상스와 초자아의 관점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법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이전에 가졌던 향락을 거세당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인간은 거세당한 자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렸던 대상 a를 욕망하게 된다. 인간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대상 a를 분별함으로써 향락을 누려야 하는데, 초자아의 발현으로 인해 대상 a를 타자가 절도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대상 a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타자를 증옴으로써, 나와 타자는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주로 종교·인종·민족·정치 영역에서 초자아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주이상스를 향유하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난다. 학생들이 지리적 타자와 윤리적인 방식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타자를 불법적으로 간주함으로써 향락을 얻으려는 초자아의 발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이 대상 a를 끝까지 분별하여 윤리적인 향락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나와 타자가 대상 a를 공유한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타자이고 타자가 나’라는 라캉의 인문학적 가치가 지리교육에 접목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초자아, 향락, 세 개의 계, 환상,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uperego, one of the human Psychic agency pursues an insidious jouissance, causing human conflict with other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causes of human conflict, which is an important topic in geography educ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jouissance and superego. It is assumed that humans have lost the jouissance they previously had in order to enter the world of law. Therefore, subject comes to desire the lost object a in order to fill the lack of the castrated position. Humans should have enjoyment by discerning ‘objet petit a’ in an ethical manner, but due to the manifestation of the superego, they believe that ‘objet petit a’ has been stolen by others. Therefore, humans hate others who illegally occupies one’s ‘objet petit a’, humans experience extreme conflict.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the superego tries to enjoy jouissance in an unethical way, mainly in the areas of religion, race, ethnicity, and politics. In order for students to live together with the geographical others in an ethical way,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expression of the superego, which seeks to gain enjoyment by considering the others illegal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guide students through geography education so that they can discern ‘objet petit a’ and obtain ethical enjoyment.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 ‘objet petit a’ is shared between I and the other, and Lacan’s humanistic value of ‘I am the other and the other is I’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Superego, Jouissance, Three register, Fantasy, Geography education

*광주광역시초등학교 교사(Teacher, Gwangju Gwangcheon Elementary School, tail303@hanmail.net)

I. 서론

본 논문은 인간의 정신적 행위자인 초자아가 음험한 주이상스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타자와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이에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갈등의 원인을 주이상스와 초자아의 관점에 기반하여 해석함으로써, 지리적 타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습에 라깁의 정신분석적 관점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교육은 시대에 맞춰 기존에 확립된 개념의 틀 내에 머물기보다는 기존 개념의 정의를 뛰어넘는 질적인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되고 세밀해진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jerre, 2023:248-249).

이에 라깁의 정신분석은 기존 지리개념에 새로운 방향성과 밀도 높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담론으로 여겨지기에, 주요 지리 개념에 대해 다르게 아는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리교육은 이 세상 인간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을 다루는 교과이다.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갈등은 그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다. 개발과 보존 간의 갈등, 인종·민족·종교 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국가 간의 영토 갈등 등이 지리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타자의 자원이나 영토를 쟁취하여 번영을 누리기 위해 또는 같은 민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민족과 공유하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타자와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보고 경험한 상징 체계(사용 언어·믿는 종교·음식의 종류 및 먹는 방법·의복 차림새·일하는 방식이나 여가를 즐기는 방식 등)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므로, 나와 다른 상징 체계에서 살아가는 타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지리교육은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상징(문화) 체계로 된 인문환경을 구축하게 된 연유를, 주로 기후와 지형이라는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을 활용하거나 극복하는 와중에서 생기는 인간의 열정은 다른 자연환경에 속한 타자와 차이가 있는 상징을 만들어 낸다.

인간은 자급자족이라는 삶보다는 분업이나 교역 같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주를 풍요롭게 영위해 왔

다. 인간은 타협이 불가능하거나 강제로 빼앗고 싶은 경우 테러 및 전쟁과 같은 극한 갈등 상황을 조장하여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따라서 타자의 상징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상징 체계가 더 훌륭함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이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지금도 종교·민족·인종·영토·이념 등을 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보면, 인간의 본래 속성이 물질적 이익을 통해 안주하기보다는 타자와의 갈등을 통해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의 예배 방식이 본인에게 큰 해가 되지 않으나, 이를 비웃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영역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적대화시켜 응원을 통해 극도의 흥분상태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를 즐기며, 전쟁시적을 단순히 사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갖 괴롭힘을 통해 목숨 외에도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상당히 유별나고 일반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삶의 방식이 다른 타자와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며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언행들이 많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과 타자의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인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자가 발전이 필요한 연민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여겨지면, 인간은 지리적 타자에 대해 ‘감정(emotion)’을 개입시키거나 ‘감정 이상의 것’ 또는 ‘감정 이외의 것’이 개입되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게 된다.

주로 학교지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감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배제시키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을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일단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적 타자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자의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보며, 타자를 도울 관련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여 실행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리적 타자의 처지에 대해 알더라

도 인간의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타자의 처지가 마음과 닿지 않으며, 타자와 함께 평화를 영위하도록 설립된 법과 제도에는 온갖 허점이 난무하다.

사실 현재의 학교교육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통해 학생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ego)'로 길러낸다면, 자아가 감정을 충분히 내재화하여 타자에 대한 도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 엘리트들의 감정 파탄적 행위들을 언론을 통해 매일 접하게 되며, 개개인의 기분이나 느낌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며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공감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지만 공허한 말뿐임으로 간주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제 학생을 감정을 지닌 자아로 길러내는 교육목적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라깡의 정신분석에서는 소위 합리적인 이성을 갖는다는 '자아'를 문제가 많은 '정신적 행위자(psychic agency)'로 여긴다. 강한 자아를 확립한 인간일수록 자신의 내부적 정체성이 공고해져서 외부의 타자와 더욱더 대립각을 세운다고 볼 수 있다.

라깡은 인간의 내부는 자아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더러 자신의 비어 있는 내부에 타자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주체(subject)'임을 자각하라고 한다. 동물이나 사물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의 사고관도 있으나, 라깡은 소위 연결이라는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 연결은 커녕 인간 내부에 이미 타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라깡은 이 참을 수 없는 진실을 인간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라깡은 자아와 주체 외에도 인간의 또 다른 정신적 행위자를 설정하는데, 바로 '초자아(superego)'이다. 초자아는 자아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이 법과 도덕을 어겼을 경우 인간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라깡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타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초자아의 발현이라고 보고 있다.

라깡은 40여 년에 걸쳐 정신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신분석이 '심리학(psychology)'에 근본적으로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라깡은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인 욕망, 욕동, 환상, 향락 등의 적용을 통해

인간사회에서 급진적인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아가 외부의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기 위해 자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심리학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Žižek(1989)이 '나는 타자이다(I is an Other)'라고 말한 것처럼, 정신분석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중심으로 두는 '자기중심적'인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Kingsbury, 2011:721).

심리학은 주제에서 객체로 향하는 단 하나의 방향성만 설정하고 이를 주체의 입장에서만 분석하지만,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은 주제와 객체 중 누가 우위를 점할 것 없이 동시에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라깡의 정신분석은 여러 실체들에 비해 절대로 인간을 우위에 두지 않고 있으며, '특정한 구조(기표 네트워크)' 내에서 인간이 다른 지리적 대상들과 함께 맞물려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구조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인간 내부에서 생기는 자율적인 의식적 작용이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인간 내부의 감정도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자아의 감정보다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초자아의 주이상스가 지리교육에서 제시된 타자와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II장에서는 타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을 라깡의 세 개의 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라깡은 상상계·상징계·실재계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인간 행위자가 있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자아의 영역으로 자아는 편집증이 있으며 공격성을 일삼는 문제가 많은 인간 유형이다. 우리나라 교육목적이 학생을 자아로 길러내는 것인데, 라깡의 관점에서는 자아가 타자에 대해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상징계는 주체의 영역으로 라깡은 인간 자신이 주체임을 자각하라고 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주체임을 모르고 있다. 주체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자신의 내부에 타자를 위치시키고 있다. 실재계는 존재와 초자아의 영역이나, 본 논문에서는 초자아에 한정 짓기로 한다. 실재계의 초자아는 상징계의 자아이상이 법을 지키는 와중에 범법을 통해 음험한 향락을 누리는 특징을 갖는다. 초자아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향락을 얻고자 하기에 타자에게 많은 고

통을 가하게 된다. 라캉은 인간이 주이상스(향락)을 얻고자 삶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즐거움(향락)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향락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인간은 더 쉽고 안일한 방식으로 향락을 얻고자 하는데, 바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을 유발하여 비윤리적으로 향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II장에서는 라캉이 말하는 다양한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리학습자가 어떤 인간관을 함양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인 향락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라캉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초자아가 갖는 특징 및 초자아가 누리는 주이상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초자아라는 정신적 행위자가 강하게 발현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교실에서 교사도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들어 내밀어 학생을 괴롭게 하는 초자아로 군림할 수도 있다.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핵폭탄 개발자 오펜하이머를 예를 들어 초자아의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펜하이머는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이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초자아는 양심·자책·가혹·징벌 등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데, 기본 구조는 상징계의 법의 허점을 노림으로써 범법을 통해 비윤리적인 주이상스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주이상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체계라는 사회 구조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주이상스를 향유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이행하면서 사회 구조를 확장해 나간다. 인간의 삶의 목적인 주이상스의 향유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획득되어야 하나, 초자아가 누리고자 하는 주이상스는 타자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주이상스는 인간의 의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가다듬고 흥분하지 말자라는 감정은 인간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이상스는 일단 신체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타자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초자아가 누리려는 주이상스에 의해 타자와 갈등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초자아의 특징과 초자아가 누리려는 주이상스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지리교육은 인간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교과인데 주로 종교·인종·민족·정치 면에서 갈등이 많

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러한 지리 주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초자아의 주이상스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갈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역사적 사건이나 인간의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감정이란 심리에 한정시킨다면 인간은 여전히 타자는 배제한 채 자기 위주의 성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V장에서는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라캉의 관점을 통해서 알아보고, 인간이 윤리적인 주이상스를 향유함으로써 초자아라는 정신적 행위자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II. 라캉의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윤리적인 인간관과 학습관

1. 세 개의 계와 인간관

라캉은 세 가지 계(Three Order)인 상상계(Imaginary)·상징계(Symbolic)·실재계(Real)가 동시에 인간의 삶에서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 각각의 영역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라캉은 보고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재현이 가능한 시각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직접적인 경험만을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상상계 영역이 인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1) 상상계와 자아

상상계(Imaginary)는 인간의 시각적 작용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영역으로, 인간이 외부의 타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닮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며 타자와 애정이나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영역이다. 상상계 영역에서는 '이상적 자아(Ideal ego)'를 상징하는데, 이상적 자아는 인간이 닮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루는 '홍익인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상은 학생들이 따라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향이며 그 하위 요소로 자주적이며 협동적이고 포용적이며 디지털 역량 등을 갖춘 인간상이 있다.

자신이 이상적인 형태의 자이라고 여기는 인간은 자신이 지닌 정체성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신이 믿는 신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전지전능하며, 자신이 속한 인종이 생물학적으로나 지적으로 다른 인종보다 우세하고, 자신이 속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역사적 유서가 깊고 우수한 문화를 갖추었다고 믿는다. 상상계에서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본인이 '이상적 자아'가 되었다고 여기지만, 이상적 자아는 인간이 이상향으로 삼은 외부의 타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오인함으로써 인헤 생기는 것이다.

라깡의 관점에서 이상적 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학생들이 도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모두가 바라는 자아상에 닿지 못하므로 현실에 괴리감을 갖게 되고 배제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라깡은 인간에게는 여러 면모가 있으니 자아에만 몰입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리교육은 인종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국적차별, 외국인 혐오증, 동성애자차별, 성차별 등 인간 대다수가 겪고 있는 갈등을 다루는 교과이다. 지리수업에서 타자와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알아본 후, 어떤 식으로 폭력과 배제를 행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그런 후에 학생들에게서 격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어, 타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해야 하는 감정을 가르치고자 한다.

라깡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emotion)이 상상계의 '자아'의 심리라고 본다. 상상계의 자아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파악하기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기에, 자신이 맘에 드는 타자의 이미지를 취하여 자기의 내부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 자아는 시각적으로 통일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의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 타자를 참을 수 없어 한다.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타자의 이미지를 취합하는 자아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며 동질적인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성찰성'을 갖는 자아는 자신이 확립한 정의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자아는 자신이 타자와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성을 갖는다. '자

기 자신을 보는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아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검열하고 다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내 자신이 보증하게 된다. 따라서 타자가 자신의 내부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데, 즉 타자가 나를 응시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아는 외부의 타자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제대로 된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면 된다고 여긴다.

이처럼 굳건한 자아가 확립된 인간에게 주변의 타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동화되지 못한다면, 자아와 타자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자아가 강한 인간은 자신과 다른 타자를 참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 같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의 형성 과정을 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하여 조화롭고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국가에 대한 완벽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를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환상'을 동반하게 된다. 즉 이들은 유토피아적 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핍박하는 타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지켜냈다고 여기게 되는 편집증적 내러티브인 환상구조를 만들어 낸다. 지적에 따르면 유토피아적 국가라는 조화로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반드시 존재하는 내부적 갈등을 억압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보았다(Homer, 2005, 김서영 역, 2006:116-117).

그림 1은 상상계의 자아가 상징계에서 거세(결핍, 구멍)를 '환상'으로 가림으로써 실재계를 분별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상상계의 자아는 구조의 구멍 뚫린 부분에 환상 스크린을 설치하여 구조를 완벽하고 조화롭게 만들고자 한다. 상상계의 자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자아'의 이미지와 맞지 않은 것에 대해 공격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가치관(인종·민족·종교·문화 등 정체성)과 맞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이들을 사회에서 불필요한 '잉여(나머지)'로 여기게 된다. 잉여로 간주되는 타자로 인해 사회가 통일성이 없고 조화롭지 못하니, 이들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통해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던가 공격을 통해 사라지게 하던가를 택해야 한다는 환타지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아는 타자를 공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신들이 먼저 상대방에게서 핍박받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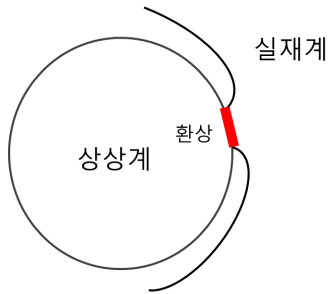


그림 1. 상징계의 균열을 환상으로 막는 상상계

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담론화시키는데, 이러한 담론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데올로기는 환상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환상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본래 최고의 향락을 누렸다고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자가 자신의 향락을 훔쳐서 대신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실재계(Real)’에 대한 관념을 틀어 막아버림으로써 윤리적인 방식으로 향락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상상계의 자아는 이데올로기라는 환상 구조를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원래 완벽했었던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원래는 내가 누리던 향락을 타자가 가져갔다고 여김으로써, 잃어버린 향락을 타자에게서 찾기 위해 타자의 격렬한 갈등을 겪게 된다.

2) 상징계와 주체와 실재계의 초자아

상징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관습·문화·이념 등으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상징계 영역에서 인간은 ‘자아 이상(Ego-Ideal)’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아 이상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외부적인 시선을 말한다. 나를 항상 지켜봄으로써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외부의 대타자인 자아 이상이야말로 내가 따르고 실현하려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Žižek, 2021:13-14).

상상계에서의 인간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만 상징계에서의 인간은 ‘대타자’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상징계에서의 인간은 자신이 이상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외부의 대타자를 의식한다. 대타자는 부모나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법이나 관습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은 대타자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여긴다. 대타자가 나를 관찰하고 판단한다고 여기며, 대타자가 바라보는 나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동일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상징계는 대타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실체를 언어로써만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실재계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물(the Thing)’의 영역으로, 언어로 파악할 수 없는 실체의 또 다른 면까지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있는 실재계에 비해 언어로만 대상을 파악하는 상징계는 사물의 일부만을 파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결여(lack)’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상계는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하고 조화롭다고 여기도록 환상이 제조된 영역이지만, 상징계는 반드시 하나의 ‘빈 곳’을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상상계에서는 자아의 의식적 사고에 의해 모든 것이 파악되고 조율되지만, 상징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실체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특정한 구조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보고 있다.

언어를 포함해 법이나 관습 같은 상징적 질서는 나름 일관성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의 요소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상징 질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 내에서 맞지 않은 것은 특정 요소를 배척함으로써 ‘공백(결여)’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하나의 빈 곳이 있는 구조 내에서 상징적 요소들끼리 서로 밀어냄으로써 상징 요소들이 구조 안에서 일관성 있게 재배치된다. 따라서 공백은 상징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이며, 공백을 만들기 위해 상징계에서 밀쳐낸 불필요한 요소는 상징계의 잉여(나머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잉여는 원래 구조 내에 위치하면서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상징계의 구조는 결코 완결성 있게 폐쇄되어 있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상징적 구조는 언제나 밀쳐낼 잉여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잉여는 구조의 내부에 속하면서도 구조의 외부에 ‘보충물’로써 따라붙는다(Floury, 2010, 임창석 역, 2022:21).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징계와 실재계의 관계는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징계는 잉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잉여를 상징계 구조 내부에서 외부로 밀쳐내려고 한다. 잉여물은 상징계에서 도저히 언어로 설명이 안되고 이해불가능한 비재현적인 것으로, 인간이 확립한 상징 체계에는 동화될 수 없는 것이다.

상징계 구조에서 잉여를 빼낸 자리에 결핍이 생기는데, 결핍으로 인한 공허함은 상징계를 운영하는 주요 원리이다. 아무런 뜻도 없는 ‘비의미’인 공허함 속에서 또 다시 알 수 없는 형태의 비재현적인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를 ‘대상 a(오브제 뽀띠 아)’라고 한다. 대상 a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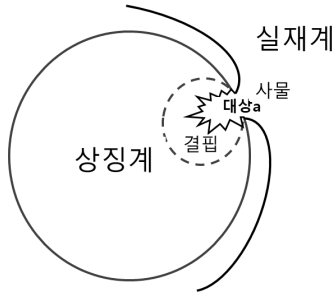


그림 2. 실재계의 사물의 일부인 상징계의 대상 a

출현은 상징 외부에 딸린 잉여물이 다시 상징의 내부로 진입한 것이며, 사실 상징계에서 불필요한 대상이었던 잉여물은 실재계에 있는 사물의 일부였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품은 실재계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가 없기에, 사물을 언어로 구획하여 언어로 재현 가능한 것만 수용하게 된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어떤 사물을 '살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일부만을 취하기에, 항상 사물을 그리워하며 사물을 완전히 획득하여 향락을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이 사물을 획득하여 향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상징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재의 일부인 대상 a를 분별하는 것이다. 대상 a는 실재계의 사물의 일부이면서 상징계에서는 비재현적인 것으로, 대상 a는 상징계와 실재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몸담은 상징계의 부족함이나 부조리함을 뛰어넘어 상징계에서 해석되지 않는 대상 a를 통해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간은 대상 a를 욕망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인간 유형을 라깡은 '주체(subject)'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체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며 의지가 굳건한 주체적인 인간에서 비롯한 주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의미의 주체는 오히려 라깡이 그토록 비판하는 자아에 해당된다. 라깡의 주체는 생물학적 육체를 지닌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다. 라깡의 주체는 기표가 지나가는 비어 있는 자리 '항(locus)'이다.

인간은 대상을 언어로 재현하게 되는데, 재현되는 글자나 소리를 '기표(시니피앙)'라고 하고 뜻을 '의의(시니피에)'라고 한다. 인간은 대상의 '의의에 알맞은 '기표'를 사용하여 대상을 재현하고자 하지만, 기표는 '의의(의의)'에 닿지 않고 다음 '기표'로 바로 연결되어 버린다.

라깡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재현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동적으로 기표가 끝없이 연쇄되는 구조에서, 연쇄된 기표들이 '비어 있는 항'의 상태로 있는 주체에게 들어와 주체의 입을 통해 발화된다고 보았다. 즉 주체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의해 말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타자를 자신 안에 내재함으로써 언어적 구조에 의해 살아가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Žižek(2021:13)은 주체가 인간에게 내재된 '비인간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이는 헤겔이 '자기부정성(negativity)'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death drive)'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인간 내부의 인간성을 발현된 것을 '자아'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는 비인간적인 요소를 '주체'라고 한다. 따라서 주체는 인간보다 더 '인간 이상(more than human)'인 것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죽음을 만드는, 즉 주체는 죽음 충동에 의한 불멸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답론이나 정동 및 의식의 중재 없이는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공허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징계에서 주체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4).

상징계의 구성 요소이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공허함'이란 주체가 거세된 자리로, 향락을 가져다준 어머니의 남근이 있던 자리이다. 공허함으로 비치는 비재현적인 실재의 조각 '대상 a'는 인간이 그토록 욕망하는 것이다. 인간은 향락을 누리고 싶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실재의 무질서가 공포스럽고 두렵게 여겨지므로, 법이나 관습 같은 상징 체계를 확립하여 향락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인간이 제정하는 법은 과도한 향락에서 인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기에, 인간이 법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박애·헌신·사랑 등의 이타적인 감정을 가질 것을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타자와 더불어 살기 위해 폭력과 차별의 방지를 법으로 제정할 만큼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대 개인으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문명 대 문명의 충돌 같은 집단 간의 갈등이 개개인의 운명의 방향과 생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직까지도 전쟁이나 집단 학살, 억압, 방치, 배제와 같은 행위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타자와의 갈등에 의한 불행한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라깡의 관점에서

는 이를 두고 범법을 통해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초자아’가 발현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캉은 「세미나」에서 초자아를 다루게 되는데, 그는 자아가 ‘상상계에 위치한 것과 대조적으로 초자아는 ‘상징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초자아는 상징계를 관장하는 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상징체계인 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초자아는 ‘순수한 절대명령이면서, 독재에 무감각한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초자아는 법인 동시에 법의 파괴자라고 볼 수 있다(Evans, 1996, 강성룡 등 역, 1998:390-391).

표 1은 세 개의 계에 속한 인간과 그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행위자를 정리한 것이다. 상상계의 인간을 자아라고 하며, 자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상적 자아’이다. 상징계의 인간은 주체라고 하며 주체는 ‘자아 이상’이 되고자 한다. 실제계의 인간은 ‘초자아’로 실제에 위치한 향락(주이상스)을 불법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정신적 행위자이다.

2. 향락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지리학습자

1) 결핍(거세)을 채우기 위한 향락

라캉에 의하면 인간은 ‘근친상간’의 금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 지배하는 문명에서 살게 되었다고 본다. 근친상간의 금지는 어머니의 남근을 금기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머니의 남근을 가졌던 가상의 기억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주이상스(향락, 즐거움)’를 얻었으나,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머니의 남

근을 아버지에게 빼앗김으로써 거세된 상태로 살게 된다. 즉 ‘금지’라는 특성을 지닌 법이 규정하는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즐거움을 주던 어머니의 남근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법이 지배하는 상징 체계에서 더 이상 향락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했던 어머니의 ‘남근(penis)’을 아버지에 의해 ‘거세(castration)’당하게 되면서, 즉 자신에게 향락을 제공하던 남근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원래 남근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 자신의 일부가 거세됨에 따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부에 ‘결여(lack)’를 지니게 되었고, 이 결여를 메워줄 ‘팔루스(phallus)’를 끊임없이 ‘욕망(desire)’하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이 향락을 향유하게 했던 어머니의 남근을 대체할 팔루스는 법의 세계에서는 명확한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향락을 제공했던 어머니의 남근을 대체하는 것이 아버지가 확립한 법의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현되지 않기에, 인간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확실하게 획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을 얻기 위해 욕망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의 남근을 향유했던 흔적이 인간의 육체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데, 주로 육체의 구멍이 있는 부위(눈, 입, 항문, 귀)에 향락의 잔여가 남아 있다. 구멍 주위에 분포한 미미한 향락은 ‘리비디날(libidinal) 에너지’라는 성적 에너지가 된다. 이는 인간을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즉 욕망을 하게 하는 기제가 되며 라캉의 용어로는 ‘욕동(drive)’이라고 불린다. 욕동은 인간이 향락

표 1. 세 개의 계에 따른 인간의 정신적 행위자

세 개의 계	세계의 계에 따른 정신적 행위자(Psychic agency)	
상상계 (Imaginary)	자아의 이상적 자아 (ideal e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상계의 자아는 ‘이상적 자아(ideal ego)’를 지향함. ‘이상적인 자아’는 주체의 이상화된 자아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하는 모습을 의미함. ‘이상적인 자아’는 라캉이 ‘작은 타자(small other)’라고 부르는 상상적인 것이며 내 자아의 이상화된 이중적 이미지(double-image)임.
상징계 (Symbolic)	주체의 자아 이상 (ego-id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계의 주체는 ‘자아 이상’이 되고자 함. ‘자아 이상(ego-ideal)’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나를 응시하는 시선을 말함. ‘자아 이상’은 나를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대타자’이며, 내가 따르고 실현하려는 이상향임. ‘자아 이상’은 나의 상징적 동일시 지점이고, 내가 나 자신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대타자 (big Other)’의 지점임.
실재계 (Real)	초자아 (supere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계의 자아 이상에 상상계의 이상적 자아가 개입됨으로써 초자아가 발현됨. 초자아는 복수심과 가학성을 가지며 나와 타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행위자임. 나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퍼붓고 나의 실패를 조롱하는 잔인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을 지님.

출처 : Žižek, 2021:13-14.

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시키는 인간 내부에 자리 잡은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분명하고 또렷한 의식에 의해 인간이 살아간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신체에서 발생하는 욕동이라는 에너지에 의해 인간이 욕망하는 삶을 영위한다고 본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즐거움(enjoyment)'이라고 할 수 있는 향락은 인간이 확립한 상징 체계에서는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향락은 가상기억 속의 어머니의 남근과 같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the Thing)'을 획득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남근처럼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사물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사물은 언어나 이미지로 재현이 불가능한 형태인 '대상 a(오브제 뽀띠 아)'로 드러나는데, 대상 a는 인간이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물의 작은 일부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사물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인간은 사물의 일부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재현적인 대상 a를 분별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향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사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쾌락(pleasure)'을 안겨줄 수 있어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최고의 기쁨인 '향락(enjoyment)'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2)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향락

향락은 최고의 즐거움이자 동시에 극한 고통을 동반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퀴리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라듐을 추출하였고, 훔볼트가 고산병이나 크레바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침보라스산을 등반하여 고도에 따라 식생의 분포를 알게 되었으며, 전태일의 분신 항거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노동법이 안착이 되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죽을 만큼 또는 죽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당시의 상징 체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 냈다. 라깡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상징인 라듐, 관계적 지리 지식, 노동법을 기존의 상징 체계에 새롭게 자리 잡게 한 것을 두고, 위 인물들이 '사물'에 근접했다고 여기며 향락을 향유한 것으로

본다.

인간은 확고한 의식과 감정을 갖는 자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의식적 자아만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적 활동 이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변 활동도 하며 숙면도 해야 하는 '본능(instinct)'을 따라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라깡은 상상계의 자아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상징계의 주체가 의식과 관계 없는 '욕동(drive)'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보았다. 욕동은 본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본능은 음식물과 물과 같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취함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동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Copjec(2002:38)에 의하면, 욕동은 욕동의 대상을 둘러싼 그 자체로 만족을 얻는다. 욕동은 직접적으로 '목표(goal)'를 획득하고자 하지 않고, 오직 대상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행위에만 '목적(aim)'을 둘 뿐이다. 따라서 욕동은 대상 주위를 감싸고 도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를 위해 인간은 보기·듣기·말하기 활동에 집착한다(Kingsbury, 2011: 732).

학교에서 학생이 지리적 대상에 대해 배울 때 지리적 대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배우지는 않기에, 학습활동은 주로 이미지를 보거나 언어를 듣고 말하는 활동에 의해 지리적 대상을 배우게 된다. 이때 학생의 의식적 작용에 의해 학습활동이 전개된다고 여겨지지만, 라깡의 관점에서는 신체 내의 욕동의 작용에 의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과 관계없이 신체의 욕동은 '대상 a'의 주변을 돌면서 향락을 얻고자 한다. 상징계의 인간은 직접적으로 사물을 취함으로써 향락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현란한 몸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대상 a'를 주위를 돌면서 즐거움을 갖는다(Kingsbury, 2011: 732).

인간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물건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need)'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언어로써 재현할 수 없기에, 언어로 표현 가능한 것만 말로써 '요구(demand)'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언어로 재현할 수 없기에 인간은 '욕망'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라깡의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원동력을 향락을 얻고자 하는 욕동의 작용으로 본다. 인간은 사물의 조각인 대상 a를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상 a 주변을 돌면서 대상 a를

욕망하는 것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퀴리가 라둠을 추출하기 전까지는 라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퀴리의 노력이 있기 이전에 라둠은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물(the Thing)’이었다.

퀴리는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서 인식되지 않아서 없던 것으로 여겨졌던 라둠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상징화’시켰다. 그녀가 우라늄에서 라둠을 추출하기 이전까지는 라둠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재현적인 ‘대상 a’의 형체를 띠었을 것이다. 그러나 퀴리는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도 마다 않고 ‘죽음 충동(욕동)’에 이끌려 대상 a를 분별하려는 욕망을 멈추지 않았다. 퀴리가 라둠을 발견하기 전에 인간이 인식하는 세상은 라둠이 없는 ‘빈 곳’이라는 구멍을 갖고 있었다. 그 ‘빈 곳’은 대상 a의 자리로, 인간은 ‘실재(Real)’의 조각인 대상 a를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세상에 인착(등록)될 수 있도록 상징화시킴으로써 향락(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림 4는 인간이 비재현적인 대상 a를 분별하기 위한 욕망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상 a가 위치한 상징계의 구멍 자리에 ‘환상(fantasy) 스크린’을 씌워버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 a는 아직 상징으로 분별이 안되는 것일 뿐, 실재의 일부 조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신체 내에 ‘욕동’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향문욕동, 구강욕동, 청각욕동, 시각욕동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부분 욕동들은 특정 대상을 욕망하면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부분 욕동의 욕망의 대상은 각각 대변, 유방, 목소리, 시선이 있다(Evans, 1996, 강성룡 등역, 1998:277).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는 동생을 보면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한다.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동생에게 모유를 먹임으로써 보여주는 사랑에 질투가 나서 동생을 증오하게 된다. 아

이는 엄마에게 모유를 주라고 언어로써 요구하겠지만, 사실은 모유와 함께 오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구강욕동이 원하는 대상은 단순히 유방이 아니라, 유방에 포함된 유방 이상의 것이다. 유방이 상징계에 위치한다면 유방에 포함된 유방 이상의 것은 실재계에 위치한다. 상징계와 실재계는 대상 a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를 환상스크린으로 차단해 버림으로써 실재계의 유입을 막아버린다면, 인간에게는 육화된 유방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인간은 상징계에서 향락이 없는, 즉 거세된 상태로 살고 있지만, 환상을 제조하는 인간은 자신이 거세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이 빈틈없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인간 부류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대상 a를 환상으로 덮어씌우기에 실재를 분별하지 못한다. 거세를 인정한 퀴리는 자신의 ‘빈 곳(결핍)’을 메꾸기 위해 세상에 없는 라둠을 욕망하였다. 그러나 환상을 제조하는 자들은 자신이 거세됨을 인정하지 않기에, 기존 상징 세계에 있는 것들만 원한다.

언젠가 TV에서 외국의 관광 현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바닷가의 한 가게에서 수많은 새끼 거북이를 잡아다가 물통에 담아놓고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파는데, 이는 관광객이 동물을 바닷가에 방생함으로써 복을 받고자 하는 행위와 협업하는 것이었다. 새끼 거북이가 죽은 것도 아니며, 관광객은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복을 받았다고 흡족해하며, 새끼거북이를 잡아 가둔 업자는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므로, 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 산업의 일부였다. 이처럼 자연을 활용한 큰 무리 없는 관광행위를 통해 인간들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감정적으로 안정과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했다. 다만 여기서 목숨을 부지한 새끼거북이는 스스로 살아가는 자연적 존재도 아니고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애원동물도 아닌,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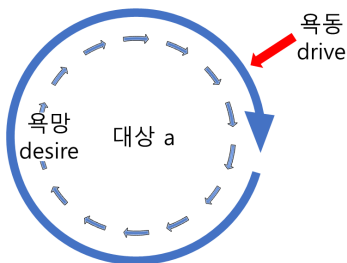


그림 3. 대상 a를 욕망하게 하는 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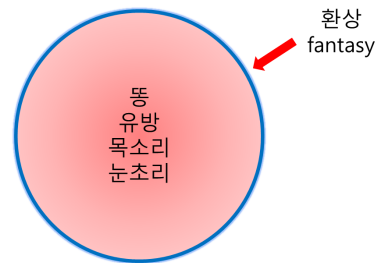


그림 4. 대상 a를 육화시키는 환상

지 교환의 대상일 뿐이다. 욕망에 의해 윤리적으로 살아 가지 않는, 즉 환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의해 새끼거북이는 단지 육화된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광을 즐기는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있으면서 자신이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갖는 낭만주의 자라고 여기게 된다. 일상의 삶에서 심신이 지친 인간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음으로써 다시 문화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자연을 배경 삼는 듯한 관광을 즐기는 인간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문화적으로 고양시키고자 한다. 잡아둔 새끼 거북이를 자연으로 되돌려주면서 자연의 순리를 느끼고자 하며, 자신이 순리대로 살고 있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자기 자신이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일관성을 계속 확인하고자 함으로써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는다. 이러한 인간은 자신이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확인함으로써 편안한 감정을 갖게 되겠으나,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연의 실체에 대한 대상 a를 분별하지는 않는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자아의 기제가 강한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잡하지 않는 대상 a를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상징을 창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결과 욕동의 진정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눈초리, 목소리, 유방, 똥' 같은 '육화'된 것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정말인지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라캉의 주이상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리학습자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상징을 받아들이는 데만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지리교사 역시 분명하게 재현

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객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만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도 곤란하다.

비재현적인 것을 분별함으로써 결핍된 자신과 결핍된 상징체계를 대상 a로 채워 넣으려는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기존 상징을 그대로 습득함으로써 자신을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은 라캉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표 2는 감정과 향락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아를 육성하고 그 자아가 풍부한 감정을 함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개인의 심리 탓으로 돌린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며 타자에 대해 자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타자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향락의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다룸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구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정신분석적 수업 방법을 지리교육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I. 주이상스와 초자아

1. 인간의 빼놓아진 향락(주이상스)과 지리적 갈등

인간은 직접적인 주이상스의 획득을 금지하는 법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나마 인간이 향락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세되어 결여된 자기 자신을 팔루스로 채우기 위해 퀴리나 흠볼트처럼 사물을 욕망하고자 하는

표 2. 감정과 향락의 차이점

	감정(emotion)	향락(jouissance)
관련 담론(discourse)	• 인간주의, 심리학	• 구조주의, 정신분석
관련 계(register)	• 상상계	• 상징계, 실재계
관련된 정신적 행위자(psychic agency)	• 이상적 자아	• 자아이상, 초자아
개인성(personality)	• 개인의 내부에서 생긴 것	• 초개인적, 사회적인 것
내용성(content)	• 지리적 타자를 대하면서 기쁨, 슬픔, 우울함, 혐오, 증오 등 풍부한 내용의 기존의 감정들이 재현되거나 양산됨.	• 지리적 타자에 대해 기존의 의미가 아닌 무의미(결여, 빈곳)를 분별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의 상징을 창조하여 향락을 얻고자 함.
정치성(political)	•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며 탈정치화 지향	• 개인의 행위를 결정짓는 사회구조(법이나 규범)를 직시하는 정치화 지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얻고자 함이며 이는 현실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향락을 향유하고자 하는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팔루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 여기므로, 전에 없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인간이다.

두 번째는 인간이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향락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쉬우면서도 잔인하고 음험한 방식을 통해 향락을 얻는 것이다. 인간은 '금기'를 내재하는 법을 기반으로 사회를 확립하면서, 법을 어김으로써 금기시된 것을 실컷 누리고자 하는 못된 마음을 먹기도 한다. 그러나 내놓고 하는 범법적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므로 보통의 인간은 범법을 함부로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가운데 법의 허점을 통해서 타자의 고통을 유발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향락을 누리고자 한다. 자신의 강한 의지와 또렷한 의식에 의해 타자의 고통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객관적 상징 체계인 법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으므로 인간은 이 즐거운 상황을 멈출 이유가 없다. 정신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특징이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초자아의 발현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자와의 갈등을 통해 향락을 누리려는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준다.

초자아라는 정신적 행위자가 발현되어 비윤리적인 향락을 누리는 인간을 예로 들자면 원자폭탄의 창시자 오펜하이머가 있다. 오펜하이머(Julius Robert Oppenheimer, 1904~1967)는 미국인으로 원자폭탄 제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물리학자들은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핵무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참여 과학자들은 독일 나치에 필사적인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보다 핵무기를 먼저 만들어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을 나치로부터 구해야 된다고 여겼다. 또한 핵무기 개발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그들이 인류사의 방향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중부의 황량한 사막에서 최초로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의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세계평화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Schweber, 2009:156-157).

Thorpe(2006)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모스

과학연구소에서 많은 팀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대 의견을 잘 설득하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구성원 모두가 오펜하이머의 도덕적 자질과 종합적인 의사결정력이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한 것으로 여겼다(Schweber, 2009:158).

원자폭탄의 발명은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첫 실험이 성공하자 오펜하이머는 고대 힌두교 경전 「Bhagavad-Gita(바가바드 기타)」에 있는 한 구절을 읊었다. '이제 나는 죽음ियो,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Nedoh, 2020:315).

1945년 5월 8일 미국 전쟁 장관인 헨리 스티imson이 핵정책에 대비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과학 패널을 따로 구성했다. 일단 위원회는 일본 본섬에 대한 공격이 194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는 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패널 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패널 측은 일본의 무인도에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입증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여겼다. 패널 측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해야만 적의 침략을 피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임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Schweber, 2009:163-164).

오펜하이머는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길, 일본을 정복하고 극동 지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연합군이 상당수 희생되는 등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또한 원자폭탄의 사용이 적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면서 동시에 적을 더 적게 살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Schweber, 2009:163-164).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님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현대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과학을 신뢰하라'라는 무조건적 명령에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과학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오늘날 주류를 형성하는 서구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행사하는 여지 없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라는 명령에 따름으로써 인간이 과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서로 단결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기대할 수 없으며 심지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Nedoh 2020:316).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원자폭탄을 탄생시킨 과학자들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더 큰 상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여겼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징체계인 과학에 대한 엄청난 신뢰로 인해,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하는 것보다 과학을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과학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택했다. 오펜하이머는 남들이 신뢰하는 과학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무시 무시한 '사신'으로 자처했는데, 이는 외부의 타자에게 감히 노골적으로 내보일 수 없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마음이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적 성취인 핵무기 개발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즉 과학이 내리는 명령에 자신은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대단히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의 명령을 따르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타자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비뚤어진 '향락'을 얻고자 하는 정신적 행위자를 '초자아'라고 한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중 오펜하이머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적이었을 것이다. 과학을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능숙하게 팀을 관할하여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진행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냈으로써 보람도 있었을 것이며,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음도 갖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첫 실험의 성공에서 자신이 타자의 죽음을 반드시 초래할 것이라는 잔혹한 마음도 갖고 있었다. 원자폭탄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도덕심도 갖고 있었고, 연합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군의 희생을 초래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원자폭탄을 투하를 반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죄책감은 타자를 고통에 빠뜨리 것에 대한 진정한 후회가 아니다. 초자아는 법의 명령에 따르고 도덕을 수호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므로 자신의 행위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 법을 이행하라고 초자아가 강하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죄책감이 들더라도 법의 명령에 의해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방패 삼아, 초자아라는 행위자는 뻘뻘해진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초자아의 죄책감도 비례해서 커져가지만, 동시에 초자아는 더욱더 향락을 즐기게 된다.

2. 죄책감과 즐거움(주이상스)이라는 양가성을 갖는 초자아

초자아는 1923년 출간된 프로이트의 저술 「자아와 이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드·자아·초자아로 구분하였다. 이드(id)는 본능을 뜻하고, 자아(ego)는 현실에 적응하는 이성을 뜻하며, 초자아는 자아를 판단하고 검열하는 '도덕적 대행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Evans, 1996, 강성룡 등 역, 1998:390).

초자아는 인간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초자아를 '마음의 전령(명령)'이라고 일컬었으며, 볼테르는 '신격(godhead)의 세속화'라고 보았다(Lichtenberg, 2004:333-334).

초자아는 인간 내부의 정신 구조 중 하나지만, 인간을 내려다보는 신의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에게 바르게 살을 영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초자아는 자아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가 의식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행위자라면, 초자아는 좀더 엄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법의 명령을 따르는 양심을 관장한다.

초자아는 인간 내부의 한 측면을 구성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동경하는 외부의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초자아는 잔혹하고 가차 없는 징벌적 특성을 지닌다(Lichtenberg, 2004:331). 초자아는 쉽게 말하자면 양심과 비슷한데, 즉 개인이 비도덕적거나 범법적 행위를 저지하는 내면의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자아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정신적 행위자이다(Lichtenberg, 2004:336).

지젝은 초자아가 실재(Real)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초자아는 실재에 위치하며, 불가능한 요구로 주체에게 폭격을 가한 다음, 그것을 충족하려는 주체의 잘못된 시도를 조롱하는 잔인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행위자라고 보았다(Barnard-Naudé, 2021:10).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문명과 불만」에서 초자아가

자아의 양심을 담당하는 가학적인 행위자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확립한 법과 도덕이라는 '문명'이 제공하는 안전과 평화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는데, 개인적이고 총동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초자아는 인간이 이룩한 문명에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어두운 면이다(Barnard-Naudé, 2021:9).

초자아는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을 뜻하며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된다. 그런데 법을 통해 근친상간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근친상간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막아 놓은 것이다. 법은 금지하고 배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은 법이 존재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자아가 법을 통해 욕망을 억제하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법의 위반을 통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라는 맹목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즉 초자아는 '법 자체인 동시에 법의 파괴자'이기도 한 것이다. Žižek(1994:67)은 법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범법의 가능성을 두고 초자아를 외설스러운 '밤의 법'이라고 불렀다(Homer, 2005, 김서영 역, 2006:109-110).

라캉의 관점에서 법은 주체가 구성되는 바로 그 즉시 주체에게 개입된다. 법은 대타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반드시 법의 영역에 위치될 수밖에 없다. 법은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을 이행하는 주체는 금지된 것을 행할 수 없는 까닭에 필연적으로 '결핍'을 겪게 된다. 법은 '금지' 효과를 갖는데, 만약 금지될 것이 없다면 인간은 마음껏 향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이상스를 '상실된 것으로 소급할 수 있으며, 인간은 주이상스를 가져다 줄 사물을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Neill, 2005:87).

법을 유발적으로 왜곡시키는 초자아는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파괴를 일삼는 특징을 지닌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된다. 오히려 초자아는 법이 주체에 내면화된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수반함과 동시에 법을 파괴하는 초자아는 어쩔 수 없이 주체에게 따라붙는 병리학적 '보충물(잉여, 나머지)'이다(Žižek, 2021:15).

Žižek(1994:67)에 의하면, 인간은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내적 긴장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속에 범법성의 욕

망을 지닌 주체에게 '죄책감(guilt)'이 생기게 된다. 인간은 법을 어겼을 때 상징적 법칙에 의해 죄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법을 어기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초자아는 우리에게 더욱더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갖추라고 압력을 가하고, 인간 내부에 초자아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죄책감을 갖게 된다(Homer, 2005, 김서영 역, 2006:110-111).

죄책감은 인류가 갖는 고질적인 병리학적 현상이다. 초자아가 발현된 인간은 죄책감이라는 당혹감과 굴욕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자기결속(self-cohesion)'을 유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Lichtenberg, 2004:329). 즉 초자아가 발현된 인간은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자신의 행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초자아와 죄책감의 관계는 프로이트의 저서 「토템과 터부」에 나오는 '원초적 아버지'라는 절대적 힘을 가진 인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원초적 아버지는 아들들과 경쟁자들로부터 여자와 부를 독차지했다. 이 폭압적이고 방탕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자신은 그 법으로부터 예외자가 된다. 인간이 법을 어겨도 되는 원초적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과정은, 법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불법적 욕망'을 갖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것을 앗아가거나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아버지를 벌하는 도덕적 양심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동시에 갖게 된다(Homer, 2005, 김서영, 2006:111-112).

혼자서 향락을 즐기는 아버지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기에, 아들들은 향락을 빼앗기 위해 살인이라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온갖 비난을 받더라도 초자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초자아가 발현되는 것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므로 외부의 시선에 의해 꺼림칙할 것이 없다. 이로써 인간은 초자아가 명령하는대로 대로 범법을 저지름으로써 잔인한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한다.

초자아의 발현이 염려된다고 해서 인간이 법을 느슨하게 제정하거나 이행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상징적 '법(아버지의 이름)'이 권위를 잃으면, 즉 금지가 없다면 법

법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욕망 자체가 사라진다. 법이 구속력을 잃게 되면 무한한 관용과 허용이 생기지만 이는 인간의 욕망을 죽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캉주의자들은 오늘날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쇠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체를 속박하는 법이 없다면 병리학적 '나르시시즘'이 촉발되어 '실재(Real)'에 위치하면서 모든 향락을 다 누리던 원초적인 아버지의 유령을 불러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금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복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Zizek, 2021:16). 즉 법이 없다면 모든 향락을 다 누리려고 하면서 자신만의 법으로 상징체계를 장악하는 독재자가 반드시 출몰한다는 뜻이다.

Zizek(1994)은 향락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즉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반을 둔 초자아의 명령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초자아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즐기라고 명령한다 Lacan(2006:298)은 초자아가 음란하고 사나운 모습을 갖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초자아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이상스를 누리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다(Hook, 2017:617-618).

3.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초자아

1) 사도마조히스트적 주이상스의 향유

상징계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자아 이상(ego ideal)' 되고자 하며, 상상계의 '자아는 자신이 원하는 타자의 이미지상인 '이상적 자아(Ideal-ego)'가 되고자 한다.

자아 이상은 항상 초자아라는 음험한 정신적 행위자를 동반하게 된다. Lacan(1988:102)은 자아 이상이 인간을 자연에서 문화라는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킨 의미의 법을 의미한다면, 초자아는 '순수한 명령 및 단순한 폭정의 성격의 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Barnard-Naudé, 2021:8-9).

주체는 현실(reality)에서 비재현적으로 드러나는 대상 a를 분별함으로써, 실재계의 사물을 향유하는 존재(Being)가 되고자 한다. 주체는 신체 내의 죽음 욕동(death drive)의 추진력으로 인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대상 a를 욕망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재현적인 대상 a를 전에 없던 새로운 상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향락을 향유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자아는 법의 세계에 살면서 현실(reality)에 안주하는 삶을 택하게 된다. 자아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영위하려고 하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실재의 일부인 대상 a를 필요 없는 잉여물로 취급한다. 자아는 불합리한 법(상징)을 깨부수고 새로운 법(상징)으로 창조함으로써 윤리적인 방식으로 향락을 향유하려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일관성과 결속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법의 허점을 통해 타격을 줌으로써 향락을 얻고자 한다.

법을 이행하는 주체에게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보충물인 초자아(superego)는 상징계의 '자아 이상'을 상상계의 '이상적 자아'로 변모시키는 정신적 행위자이다. 초자아는 법을 준수하는 상징계의 자아 이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완전하지 않은 법의 허점을 노림으로써 범법적 행위를 통해 비윤리적인 향락을 얻고자 한다.

초자아가 인간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법을 확립하고 유지시키는데 작용하게 된다. 초자아의 발현은 '죄책감과 즐거움(피학성과 가학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Hook, 2017:618). 인간의 초자아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도덕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법성을 저지름으로써 '향락(주이상스)'을 얻고자 한다. 초자아는 자신의 저지른 범법성에 대해 대타자(법·관습·도덕)가 시키는대로 따라했을 뿐이라는, 즉 '맹목적인 복종'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에 대타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향락을 취했다는 것으로 보아, 초자아는 '흉악하고 음탕한 거물'임에 다름없다. 따라서 초자아는 '피학성'과 '가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도마조히스트(Sadomasochist)'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Evans, 1996, 강성룡 등 역, 1998:391).

초자아는 상징적 법의 제정에 수반되는 스틸(타자에 대한 증오, 분노, 처벌 등)을 통해 즐거움을 갖게 된다. 이는 초자아가 타자의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마조히즘적(피학적) 즐거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초자아의 마조히즘은 상상적 자아의 사디즘(가학적)적 즐거움에 의한 것이다(Hook, 2017:618).

초자아의 기능 중 하나는 이미 '내재된' 실패에 대해 우리를 꾸짖는 것이다. 초자아는 인간이 처해진 현실과 인간의 완벽한 이미지인 자아 이상 간의 격차를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자아 이상은 주체가 타자의 존재와 그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한 후에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주체가 결여를 인지한 이후에 인식될 수 있다. 초자아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과 인간이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상향에서 벗어날 때마다 꾸짖게 된다(De Chavez, 2015:26)

2) 편집증적 주이상스의 향유

지리교육에서는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다루는데, 서로 다른 문화가 평화롭게 양립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정신분석에는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환상에 기반한 편집증을 갖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환상을 구성하는 인간은 자신이 예전에도 거세되었고 지금도 거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거세 이전에 향유했던 완전한 형태의 주이상스를 원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없다. 어머니의 남근이라는 향락을 소유했던 인간의 가상 기억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남근을 소유했다는 가정은 예전에 누렸던 향락을 다시 향유하기 위해 인간이 현실에서 부단히 욕망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주이상스를 제공하는 어머니의 남근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다. 최고의 보물인 주이상스가 나에게 없다면 이는 필시 타자가 가져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온전한 주이상스는 내가 향유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타자가 절도했으니 인간은 타자가 그토록 미울 수 밖에 없다. 웬지 모르게 나와 인종도 다르고 성적 취향도 다르며 독특한 문화를 영위하는 타자는 나보다 훨씬 더 즐거워 보인다. 이들은 나에게 없는 주이상스를 누리는데 이는 사실 내가 누리야 마땅한 것이다. 인간은 타자가 불법적으로 나에게 주이상스를 앗아가서 부당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인식한다(Hook, 2018:248).

3) 나르시시즘적 주이상스의 향유

인간은 예전에 주이상스를 향유함으로써 거세되지 않았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타자에게 없는 주이상스를 자신만이 갖는 보물로 보며 이를 통해 마음껏 즐기곤 한다.

남들과 비해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나르시시즘(자기에)은 흰 피부를 갖는 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타자가 자신들의 하얀 피부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느끼며, 흰 피부야말로 자신의 주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주이상스는 피부색 같은 신체에서만 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 분야에도 부착되어 인간에게 나르시시즘을 제공한다.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무조건적으로 모든 생명을 수용하는 자비를 자신의 주이상스로 본다. 이슬람에서는 남녀가 머리와 얼굴에 천을 두르는 관습을 자신들만의 주이상스로 여긴다. 또한 서구인들은 자신이 이룩한 과학적 업적과 자유로운 세속주의적 가치를 자신들만의 보물인 주이상스로 간주한다. 이처럼 타자에게 없는 나만의 소중한 주이상스는 나를 타자와 구분 짓게 하는 주요 정체성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이상스에 손상을 입거나 파괴를 당할 경우, 인간은 거세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파국을 상상할 수 밖에 없다(Hook, 2018:258-259).

Žižek(1993:203)에 의하면 타자의 문화적 관습이 나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기만 해도, 즉 타자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기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인간의 신체에서 흥분되고 격양된 반응이 생긴다. 자신의 주이상스를 빼앗은 타자가 이상한 형태로 즐거움을 구현하고 있다고 여김에 따라, 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다(Hook, 2018:250).

그들의 먹는 음식 냄새나 시끄럽게 들리는 그들의 음악과 관능적인 춤사위는 타자가 자신만의 즐거움을 독특하게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는 우리의 신경을 상당히 거슬리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한마디로 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그 꼴을 못보겠다는 심사이다.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상한 방식으로 향락을 누리는 타자를 무능력하거나 악랄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타자는 증오의 대상이 된다(Hook, 2018:250).

분명 ‘그들 안에 있지만 그들 이상의 것’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과잉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신경 쓰이게 한다. 커피를 후루룩 마시거나 말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등 타자의 모든 속성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Žižek(2005:290-291)에 따르면 가장 급진적 수준의 폭력은 타자에게 포함된, 즉 타자가 누리는 ‘잉여 주이상스’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Hook, 2018:259-260).

표 3은 초자아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주이상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초자아가 향유하고자 하는 비윤리적인 주이상스의 특징

주이상스의 특징	초자아가 향유하고자 하는 비윤리적 주이상스의 세부적 특징
마음이나 의식이 아닌 신체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에서 강도 높게 발생하는 리비도(성적 에너지) • 법을 어김으로써 신체에서 스티븐감을 느낌. • 타자를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신체에서 증오의 전율을 느낌.
비인간적,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이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이려면, 주이상스는 법적 질서를 따르는 사회구조에 의해 생겨나는 비인간적 차원에 속함.
법을 실천하면서 법법을 노리는 외설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의 허점을 노림으로써 생기는 타자의 고통을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하고자 함. • 법의 파괴를 통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주이상스를 향유하고자 함.
사도마조히스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법적 행위로 타자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적인 사디즘적 면모를 보임. • 타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적 면모를 보임.
편집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이상스는 원래부터 내가 소유했던 것인데, 타자가 이미 훔쳐갔거나 훔치려고 노리고 있다고 여김. • 타자가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는 것은 나의 주이상스를 절도한 것으로 타자를 불법적이고 악랄하다고 여김. • 타자가 나의 주이상스를 훔쳐서 즐기지 못하도록 타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움.
나르시시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주이상스를 원래부터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타자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 특별한 존재라고 여김. • 집단이 누리는 주이상스를 민족이나 국가의 보물로 여김.

출처 : Hook, 2017:2018, Kingbury, 2011.

IV. 지리교육의 '갈등' 주제에 초자아를 적용한 실제

본 장에서는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타자와의 갈등과 관련된 주제에 초자아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지리교육에서는 인간들 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학생들이 갈등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지리적 지식을 파악하게 한 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적절한 감정을 유도하거나 필수적인 감정을 내재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 상상계의 자아가 생산한 산물이라고 간주하므로,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논하는 감정을 기르는 것은 타자와의 갈등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이에 라강의 관점에 의해 인간을 상징계의 주제로 상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초자아를 중심으로 타자와의 갈등의 원인을 논하고자 한다.

초자아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주이상스를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법과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범법을 통해 빼돌려진 향락을 얻고자 함으로써 인간은 다양한 타자들과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타자를 비난하고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서슴치 않는 초자아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징들을 내재하고 있다. 초자아는 법을 어

기는 것은 기본이며, 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왜곡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초자아는 타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옷차림새도 너무 이상하고 타자의 춤이나 음악은 너무나도 역겨워서 멀리하고 싶어한다. 초자아는 타자가 즐거워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가장 즐거워야 한다고 여김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 즐기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이다. 초자아는 향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으며 타자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는 양심과 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오펜하이머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리적이고 평화주의자인 엘리트도 타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예견하는 비윤리적인 초자아의 면모를 보였기에, 이러한 초자아의 특징을 지리교육에서 적용하는 것은 상징체계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갈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영감을 줄 것을 생각된다.

현재 지리교육에서 이행하는 것과 같이 인간들 간의 갈등 현황과 갈등 개선 사례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라강의 관점에서 인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학생 자신과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에, 타자와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리교육의 주요 주제인 종교, 인

종, 민족, 정치면에서 인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주이상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초자아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종교에서의 초자아의 주이상스

종교는 지리교육에서 인문환경의 큰 축을 담당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편종교와 민족종교의 의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을 규정 짓게 한다. 절이나 성당 같은 종교적 건축물, 반드시 치러야 하는 예배 의식, 금기시해야 할 음식과 행동 방식 등에 각각의 종교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지리교육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이 타자와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리교육에서는 타자가 믿는 종교의 특징을 알고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요 종교의 세부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타자의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갖출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 학생들이 타자의 종교가 나의 종교와 다르다는 지식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학생들에게 타자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감정이 이입되었을 것이라고 간주하며, 이를 통해 종교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태도를 갖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지리교육을 통해 모든 종교가 다 차이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된다는 감정을 함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상징 체계를 통해 인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 권력 집단에 의해 유지되었다. 종교는 정치와 합쳐져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세세한 종교적 규율은 인간을 도야시키기도 했지만 매우 괴롭히기까지 했다.

성에 대한 천주교(기독교)의 금욕적인 특징은 중세유럽에 매우 왜곡적인 성문화를 양성했으며, 현재까지도 성직자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라캉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들이 엄숙한 종교 규율을 이용함으로써 외설적인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초자아가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종교인 이슬람교의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기에서는 Satrapi(2006)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시기에 쓴 자서전 「Persepolis(페르세폴리스)」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인간은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는 경우 적당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곧바로 법과 규범을 제정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법을 제정해놓고 타자가 이를 지키면서 고통받는 모습에서 향락을 얻는다는지, 또는 무리한 법의 제정으로 타자가 법을 지키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타자의 처벌을 기대하며 향락을 얻으려는 양태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 작가인 사트라피(Satrapi)는 비종교적이고 서구화된 프랑스 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었기에,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며 복장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의 새로운 혁명 정권은 그녀가 이슬람 복장 규정 및 이슬람의 관습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범법에 따른 죄를 묻게 된다. 여기에서 이슬람 혁명 이전의 '비근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란인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새로운 혁명 정권을 지지했는지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종교적 근본주의자인 혁명 세력들은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장 규제 · 이웃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개 처벌 · 이슬람 사회에 독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훈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에 기반한 법의 제정에는 '주이상스(향락)'를 향유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혁명 수호자는 종교법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통해 종교에 미온적인 동료를 박해함으로써 가학적인 스타일을 느끼게 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분개 행위가 법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타자가 이슬람법을 어길 경우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를 통해 이란 종교혁명가들은 분명히 주이상스를 향유했다고 볼 수 있다(Hook, 2018:264).

인간은 상징적 법칙을 따르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이 법에 더욱 헌신하고 법과 동일시될수록 더욱더 은밀하게 법을 즐기게 된다. 급기야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법의 실행을 통해 흥분을 맛보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 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려면 사람들에게 외설적인 만족감인 주이상스를 제공해야 한다(Hook, 2017:617).

따라서 인간은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된다.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 향락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초자아가 발현됨으로써 법을 제정하고 이행하게

되는데, 인간은 법의 허점을 노리면서 '비뚤어진' 차원의 향락을 얻고자 한다(Hook, 2018:263).

2. 인종에서의 초자아의 주이상스

지리교육에서의 인종은 자연환경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인간 부류를 뜻하긴 하지만, 주로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지배-피지배 관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다루지고 있다. 요즘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학을 가거나 결혼을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자발적인 이주를 하고 있으나, 전혀 다른 외양과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인종차별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인종주의는 신체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신체를 둘러싼 담론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타인종을 봤을 때 괜한 불쾌감이 들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를 두고 인종주의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려서도 안된다. 인종주의는 타인종이나와 이질적이고 동화될 수 없는 형태의 즐거움(향락)을 소유한다고 여김에 따라 생기는 타인종에 대한 증오라고 볼 수 있다(Hook, 2018:255).

인종주의를 개인의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를 탈정치화시켜 인종주의가 사회 구조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게 된다(Hook, 2018:248). 인종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즉흥적인 정서적 반응이 아니다. 보통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개인의 무지와 근거 없는 증오심과 편협함에 의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여기지만, 인종주의는 음험한 주이상스가 주입된 강력한 '도덕적' 차원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Hook, 2018:265).

인종차별적 행위는 타인종을 처벌하고자 하는 초자아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타인종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파괴하며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나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간주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려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일탈이 기보다 법을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하려는 사회적 구조에 기반한다. 주이상스는 법의 체계라는 사회 구조를 시행하여 이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Hook, 2018:265).

주체는 자신이 거세되기 이전에 세상의 향락을 다 가졌다고 여기며, 거세된 이후에 향락을 향유하게 해줄 대상을 욕망하게 된다. 즉 인간이 원래 가졌던 소중한 보

물 같은 것을 누군가에 의해 잃어버렸다는 '절도'된 개념으로 주이상스를 여기게 된다.

영국에 극우 성향의 국민당 지도자 Nick Griffin은 이슬람이나 무슬림 이민자들이 영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핀은 대중들을 향해 영어는 점차 사라지고 영국의 역사적 문화적 성취가 잊혀질 것이며 학생 3명 중 1명만이 백인으로 구성될 것이며 기독교적 가치가 쇠퇴할 것이라고 연설하였다(Hook, 2018:257).

호주 정부가 1937년 동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백인들은 어보리진들에게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과 같은 정체성으로 살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총리였던 Julia Gillard는 호주의 원주민인 어보리진들에게 백인들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싶다면 백인들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원주민들이 행동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총리는 원주민들이 백인들처럼 직업을 갖고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며 그들이 백인들이 제정한 호주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러드는 호주 원주민이 자기 스스로를 돕지 않음으로써 백인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겪는다고 여겼다(Harrison, 2012:9-10).

Langton(2003:11)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종주의는 타인종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았다. 길러드 총리의 연설은 원주민과 비원주민을 비슷하게 만들으로써 어보리진의 인종적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호주 백인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안전한 원주민'을 원했기에, 원주민들의 활동이 저지되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격리되는 것을 원했다. 백인들은 부메랑과 같은 원주민들의 전통문화는 관광자원이 되기에 인정하고 지켜주고 싶지만, 원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 국가에 살지만 타인종인 어보리진이 보이지 않도록 백인들이 호주 사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원주민과 백인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며 원주민의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되었다(Harrison, 2012:9-10).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는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이들이 영국의 선진적 사회보장제도를 무료로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이주민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약탈함으로써 영국인들이 실직을 당하게 한다고 여긴

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이주민들이 영국에서 취업을 함으로써 본국으로 돈을 송부하는 것을 두고 영국에 기생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국인들이 터부시하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영국경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Homer, 2005, 김서영 역, 2006: 114).

지적은 독일 나치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편 것을 두고 초자아가 발현한 것으로 보았다. 유대인들이 독일을 위협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리아인으로 만 이루어진 국가의 수립이 유대인들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 질서가 수반됨에 따라 가능한 초자아 때문으로 간주된다. 파시즘의 선전적 정치는 조화로운 아리아인의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 유대인이 법을 훼손한 것으로 표현하여 이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형태로 조직된다. 즉 부와 권력을 독점한 유대인들에게 맞서 독일이 상당히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이하로 묘사된 유대인의 모습은 이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충분하다. 유대인을 말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인데, 나치는 사실상 유대인의 부와 권력은 독일이 소유했던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법을 통해 유대인을 더욱 제재시켜야 한다고 보는 초자아가 대두된다. 물론 나치의 이데올로기는 매우 모순적이지만 반유대주의자들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특정한 환상구조가 있기에 가능하다(Homer, 2005, 김서영 역, 2006:115-116).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인종차별을 통해 빼앗아진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법에 의해 또는 학교교육에 의해 타인종을 대놓고 차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보면서 무지하고 뻔새나고 더럽다고 마음속으로 느끼기도 할 것이다. 인간은 타인종에 대한 중요를 하면서도 혹시나 내 속마음을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스킬을 갖기도 한다. 인종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양심을 저버린 인간은 신체에서 증오의 전율을 느끼면서 즐거움(향락)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Hook, 2017:609-610).

인종차별행위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인간은 인종차별에 따른 주이상스를 향유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으로써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내가 양심상 인종차별행위를 개탄하고 거부할수록

여기에 굴복함으로써(반대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향락을 얻고자 곁과 속이 다른, 즉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Hook, 2017:610).

이처럼 현대의 인종차별적 행위는 절도 및 증오와 관련된 주이상스에 의한 것이기에, 인종차별의 원인이 역사적으로 비롯된 것이라거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주입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민족에서의 초자아의 주이상스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민족은 국가를 이루며 사는 공동체로 간주된다. 민족은 공통의 국가 문화를 지님으로써 타민족(타국가)과는 상당히 다른 상징 체계를 갖고 있다. 지리수업에서 민족이나 국가를 가르치는 것은 넘쳐나는 다양성을 다루는 것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큰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세계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해 배움으로써 타민족과 타국가에 대한 멸시와 증오, 나의 국가와 나의 민족이 우월하다는 과격한 민족주의도 초자아가 주이상스를 향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공동체나 국가공동체는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타자에게 필요 이상의 엄청난 공격성을 보인다.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민족이나 국가 간에는 전쟁과 테러라는 극심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언론에서는 자원과 영토 같은 경제적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애착이 담긴 장소 '키이우(키예프)'를 둘러싼 정신적 신경전일 수도 있다.

키이우를 둘러싼 두 국가의 장소애착은 민족적 주이상스라고 볼 수 있다. 그 지역은 다른 민족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되는 내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리비도적 보물이다. 반대로 원래 그 장소는 내 민족에게 주이상스를 향유하게 했는데, 내가 누리던 보물을 훔쳐간 타자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자들이므로 내가 더 큰 처벌과 응징을 통해서 되찾아와야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지만,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측의 하마스 정당(테러단체)의 불법적인 침입이 원인이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원래의 팔레스타인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측 인질

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버젓이 노출시킴으로써 음험하고 외설적인 주이상스를 향유했다. 내 조국을 앗아간 이스라엘이 먼저 불법적으로 나의 향락을 절도한 것이므로, 하마스의 초자아는 이스라엘 측을 가혹하게 응징함으로써 만족스럽게 즐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이 살상되는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적의 영토에 사정없이 공격을 퍼부어댔다. 이스라엘 측도 오펜하이머처럼 음험한 초자아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들이 죽는 것에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 조국이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면서 초자아는 불법적 행위가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

이 두 민족은 '환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세당한 적이 없으므로 완벽한 향락을 소유한다고 여기고 있다. 내 향락을 상대방이 이미 절도했거나 훔치려는 기회를 엿본다고 여김으로써, 상대방을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원래 누리던 향락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사회적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탓하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초자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향락을 훔치려는 타민족과의 대면은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거나 무시무시한 충격적 만남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사실은 내 향락을 절도하려는 타민족을 공포스럽게 고안하는 편집증적 음모를 꾸며서 타자가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환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이 타자에게 핍박받는 시나리오를 써내려 간다. 그 타자는 나의 대상 a를 훔치려고 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그들을 징벌하는 편집증적 자아로 변모하게 된다(Blanuša and Jerbić, 2021:313-314).

자신과 다른 이미지를 가진 자들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로 간주된다.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을 간주하기를 국가를 증오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로 여긴다. 반체제 인사나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으며, 과거의 이들을 현재로 소급함으로써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하고자 한다. 이처럼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는 것을 즐기고자 한다. 국가에 안주하고 싶은 나의 즐거움을 훔치는 위험한 인물을 '실재(Real)' 수준에서 공포스럽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증오를 갖게 된다(Blanuša and Jerbić, 2021:313-314).

Žižek(1993:202)은 국가가 향락이라는 비논리적인 '실재'에 의해 지속된다고 보았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향락'을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행(이벤트)를 통해 국가 신화를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국가를 영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8).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를 '실재'의 측면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민족에 대한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실제 측면은 '그냥 나의 민족(국가)이니까'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나의 조국과 나의 민족은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향락의 대상이 된다. 이는 보통의 국가구성원들이 조국에 대해 갖는 감정을 압도하는 것으로, 국가(민족) 자체를 형언할 수 없는 나의 보물(주이상스)로 보는 것이다(Blanuša and Jerbić, 2021:313).

라깡은 국가정체성의 구축보다 국가 정체성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Stavrakakis(2007:192-200)는 국가정체성의 구축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가정체성을 지속시키는 내구성과 탁월함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타브라카키스는 국가정체성이 초기에 형성된 상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상징 체계를 확립한 공동체 구성원들(민족, 국민)이 향유하는 주이상스와 관련되어서 발생한다고 여겼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9).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국가구성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지리에서 배우는 상징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영역'에 대해 학습하거나 '지명'의 유래에 대해 배우거나 '주요 명산'들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 또는 국기 문양의 의미나 애국가 등을 배우게 된다. 학교 지리에서 배우는 이러한 상징적 지식들을 통해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정체성이라는 담론을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상징들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경이 사실 중국 어느 지역까지였다거나, 울릉도는 원래 같은 영역이 아니었는데 무력으로 복속시켰다는 등의 내용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지녀야 할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깅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완결된 개념에 의해서 도출될 수가 없다. 민족주의라는 담론은 ‘결여’를 포함함으로써 폐쇄성과 총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다. 그렇다면 라깅의 관점에서 완결된 민족의식은 인간의 오인과 환상적 틀 안에서 가능하다. 즉 민족주의라는 담론의 잉여를 ‘환상(fantasy)’으로 덮어 씌워버림으로써 민족주의 담론을 완결된 것으로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구성원들에게 필연적으로 내재된 ‘부정성(negativity)’을 간과하는 것이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3-304).

국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영토에 그 이상의 것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결정 불가능한 대상 a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역사적·사회적·정치적인 의미는 환상적 내러티브에 의해 구성된다(Blanuša and Jerbić, 2021:310).

Levi-Strauss(1989)는 국가 자체가 심층적인 의미를 내재하거나 엄밀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모호한 성격을 갖는 ‘샤머니즘적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4). 국가는 스스로 존재하기보다는 국가구성원들이 국가라는 실체를 믿는 과정에서 국가가 연속되는 것이지, 국가의 본래적 의미도 없고 원래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강하게 믿는 행위를 샤머니즘에서 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국가는 믿음에 충실한 국가구성원들에 의해 존속된다고 볼 수 있다. Kingsbury(2011:728)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한 충성이나 봉사 심지어 희생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 시키게 되고, 이점이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Žižek(1993:200)은 상징계가 운행되는 구조주의적 원리에 의해 담론을 일관되게 종결시키는 것에 항상 저항하는 어떤 잉여물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징적 수단(법이나 문화)으로 국가공동체를 통일되고 단결된 것으로 유지시킬 수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국가구성원을 서로 뭉치게 하는 유대감은 공통의 문화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구성원들이 ‘사물을 획득함으로써 생기는 향락을 추구하는 공유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직된다고 보았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8).

Žižek(1991:165)은 국가공동체가 향락을 조직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국가적 대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국가란 향락이 사회적 장으로 분출되는 특권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Blanuša and Jerbić, 2021:308-309). 예를 들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자국을 상징하는 특정 색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국가구성원들에게 아주 사소한 나르시시즘 주이상스를 제공할 수 있다(Kingsbury, 2011:727-728).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의 주이상스는 ‘집단적인 몸(collective body)’인 조국을 위해 누군가를 황홀하게 죽이거나 때로는 자신이 기꺼이 기쁘게 죽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Salecl(1993:16,144)은 민족주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으로 여기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기독교적 이미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신비로운 몸체를 사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이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위함이다(Blanuša and Jerbić, 2021:313).

4. 독재 정치에서 초자아의 주이상스

겉으로는 도덕적 신념을 주장하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인간들을 언론에서 숭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상징 체계에 군림하면서 법을 대표하며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는 시늉은 하지만, 이를 어김으로써 대단히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은 법을 다루기를 좋아하고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더 법에 기생해서 살아간다. 사악한 즐거움을 위해 항상 법의 허점을 노리므로, 법을 더 많이 알지만 완벽한 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인간은 법을 이행함에 따라 ‘단지 의무를 다했을 뿐’임을 드러내지만, 상징적 법칙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회피함으로써 더욱더 고조된 주이상스를 얻고자 한다. Žižek(1997)에 의하면, 법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이 중립적이며 범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사실상 범법을 행함으로써 즐기고 있다는 것을 감추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지젝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라깅의 관점에서 다소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단순히 상부의 법적 명령을 따르고 제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악’이 중립적이거나 평범함을 띠다기보다는, 인간이 명령에 성실히 따름을 위장함으로써 외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잠재적인 만족감(향락)을

언을 수 있기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범한 방식으로 '악'이 행해진다고 보았다(Hook, 2018:264).

McGowan(2004:30)에 의하면 자아 이상에 초자아가 밀접하게 접근할 경우 파시즘에서 볼 수 있는 독재자에 대한 복종을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Barnard-Naudé, 2021:319).

상징계의 자아 이상은 자신을 훌륭한 국가구성원으로서 바라봐주는 '시선(gaze)'을 의식하는 인간이다. 자아 이상은 국가적 규범을 잘 수행함으로써 주이상스를 누리는 자이다. 건국의 아버지, 영웅적인 조상, 상징적 사건 등을 내러티브화 시킴으로써 국가구성원들은 주이상스를 얻게 된다(Blanušić and Jerbić, 2021:315-316).

그러나 자아 이상의 메커니즘에는 외설적인 초자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초자아는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을 모두 갖고 있지만 주로 실재계에 속한다. 초자아는 '즐기라'는 명령에 의해 작동한다. 이 명령에 의해 초자아는 무의미하고 파괴적이며 반법률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초자아적 인물은 독재나 과도한 축적을 통해 공개 되기를 거부하는 국가 지도자나 범죄를 저지르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Blanušić and Jerbić, 2021:315-316).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국토의 특징이나 국가적인 영웅들을 배움으로써 자신이 국가구성원이라는 것을 대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이 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복종을 요구받게 되는데, 권력자와 피지배층의 사도마조히스트적 초

자아의 발현으로 인한 주이상스는 북한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지리교육의 다루는 4개 분야의 갈등 분야에서 초자아가 부정적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위해 타자와 겪는 갈등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타자가 누리는 주이상스는 사실은 내가 누려야 할 주이상스로, 타자에게 절도 당한 것이다. 외부의 타자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재하고 있으며 있으므로, 타자의 일부는 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내부적 결핍(거세)으로 인해 이를 채우기 위해 대상 a를 욕망하는데, 인간은 타자에게서 대상 a로 여겨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을 보게 된다. 인간은 환상에 의해 대상 a가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여기며, 대상 a를 타자가 절도했다고 생각한다. 타자의 모습이나 행동에서 과도하고 욕감적인 '잉여' 주이상스가 느껴지는 것은, 나의 대상 a가 타자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Hook, 2018:261)

Žižek(1997:58)에 따르면 타자의 잉여 주이상스인 대상 a는 내가 거세된 자리에서 발생한다(Hook, 2018:262). 따라서 타자는 나의 대상 a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일부이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데, 내 안에 타자의 일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이라고 한다.

Žižek(1993:203)에 의하면 내 안의 타자를 증오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증오이다. 타자를 증오하는 인종주의는 사실 나에게 대한 증오라고 볼 수 있다(Hook, 2018:261).

표 4. 갈등의 원인이 되는 초자아의 주이상스 향유 방식

	초자아가 향유하는 부정적 주이상스의 특징
종교(문화) 분야에서 초자아의 주이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키기 힘든 종교적 규율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범죄자나 무능력자로 취급함으로써 초자아가 가학적인 주이상스를 향유함. • 타종교의 의례에 대해 이상한 방식의 주이상스를 누린다고 여김으로써 혐오감을 가짐.
인종 분야에서 초자아의 주이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종의 신체나 행동방식에서 느껴지는 과잉 활력을 그들만의 주이상스라고 여김. • 백인의 흰피부나 흑인의 성적능력 등 타인종만이 갖고 있는 보물 같은 주이상스가 있다고 여김. • 인종차별은 개인의 무지가 편견이 아니라 주이상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에 기인한 것임. •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을 부추김으로써 스틸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 자체가 주이상스를 향유하는 것임.
민족 분야에서 초자아의 주이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부터의 내 땅이었고 다른 혈통이 섞이지 않는 같은 민족이었다는 환상구조를 만들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적과의 투쟁을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함. • 타민족과는 다른 자기 민족만이 누리는 나르시시즘적 주이상스가 있다고 여김. • 국가는 국가구성원들이 주이상스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를 조직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음.
정치 분야에서 초자아의 주이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재자들은 원초적 아버지와 같이 아들들의 여자와 재산을 뺏음으로써 엄청난 주이상스를 누림. • 지키기 힘든 강력한 법을 시행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혹한 징벌을 내림으로써 주이상스를 누림. • 모든 사람이 독재자가 만든 법을 지켜야 하지만 독재자만큼을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주이상스를 누림.

V. 결론

본 논문은 지리교육의 주요 주제인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타자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초자아라는 정신적 행위자가 비윤리적인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이 그토록 타자를 증오한 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겨지는 주이상스의 특징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의 향락을 타자가 절도했다는 환상을 구성함으로써 그 향락을 타자에게서 다시 찾아오고자 하기에, 인간의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타자가 나의 일부이고 내가 타자의 일부이지만, 주이상스를 단순히 물질이나 몸뚱이로 육화시키는 비윤리적 때문에 나와 타자가 대상 a를 공유함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타자가 나이고 내가 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은 타자에게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와 타자 사이의 증오를 멈추기 위해서는 나에게 없는 것을 타자에게 주는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하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사가 강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교사에게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사실은 교사도 자세히 몰라서 수업 때 대충 설명한 것이었다. 교사는 수업 배경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줄 것이 없다. 만일 교사에게 초자아가 발동한다면 학생더러 직접 학습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학생이 공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교사는 자기가 공부를 직접 안해서 즐겁고 학생을 괴롭혀서 즐겁다. 비윤리적인 주이상스가 교실을 감도는 순간이다.

하지만 윤리적인 교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학생에게 주고자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교사가 수업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타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Barnard-Naudé, J., 2021, An Ordeal of the Real: Shame and the Superego, *Acta Academica*, 53(1), 1-22.
- Bjerre, H.J., 2023, Master, Don't You See That I Am Learning?, *Problemi*, 61(11-12), 247-262.
- Blanuša, N. and Jerbić, V., 2021, Enjoying an Empty Edifice: Nationalism Through the Lenses of Lacanian Psychoanalysis, *Anali Hrvatskog Politološkog Društva*, 18(1), 303-323.
- Copjec, J., 2002, *Imagine There's No Woman: Ethics and Sublim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De Chavez, C., 2015, Superego Injunction: Why Yes Means No, *Golden Line*, 26-29.
- Evans, D., 1996,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강성룡·권희영·김병준·김종주·손병우·신명아·이수연·이만우·이유섭·이윤희·조종근·한영구 역,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서울: 인간사랑).
- Floury, N., 2010, *Le Réel Insensé - Introduction à la Pensée de Jacques-Alain Miller*, France: Germina(임창석 역, 2022, 「상식을 넘어서는 현실계- 자크 알랭 밀레와 라캉 오리엔테이션」, 성남: EDITUS).
- Harrison, N., 2012, Aborigines of the Imaginary: Applying Lacan to Aboriginal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0(1), 5-14.
- Homer, S., 2005, *Jacques Lacan*, London: Routledge(김서영 역, 2006, 「라캉 읽기」, 서울: 은행나무).
- Hook, D., 2017, What is "Enjoyment as a Political Factor"?, *Political Psychology*, 38(4), 605-620.
- Hook, D., 2018, Racism and Jouissance: Evaluating the "Racism as (the Theft of) Enjoyment" Hypothesis,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23, 244-266.
- Kingsbury, P., 2011, The World Cup and the National Thing on Commercial Drive, Vancouv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4), 716-737.
- Lacan, J., 1988, *Freud's Papers on Technique, 1953-1954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1)*, New York: Norton.
- Lacan, J., 2006, *Ecrits: The First Complete Edition in English*,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Langton, M., 2003, Aboriginal Art and Film: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Grossman, M., eds., *Blacklines: Contemporary Critical Writing by Indigenous Australian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Lévi-Strauss, C., 1989, *Strukturalna Antropologija*, Zagreb:

- Stvarnost.
- Lichtenberg, J.D., 2004, Commentary on "The Superego-a Vital or Supplanted Concept?", *Psychoanalytic Inquiry*, 24(2), 328-339.
- McGowan, T., 2004 , *The End of Dissatisfaction? Jacques Lacan and the Emerging Society of Enjoyment*, Albany NY: SUNY Press.
- Nedoh, B., 2020, Now I Am Become Death, Destroyer of Worlds': Science, Perversion, Psychoanalysis,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24(4), 315-333.
- Neill, C., 2005, The Locus of Judgement in Lacan's Ethics, *Journal for Lacanian studies*, 3, 85-100.
- Salecl, R., 1993, *The Spoils of Freedom: Psychoanalysis and Feminism After the Fall of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trapi, M., 2006, *Persepolis*, London: Random House.
- Schweber, S.S., 2009, *Einstein and Oppenheimer: The Meaning of Geniu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vrakakis, Y., 2007, *The Lacanian Left: Psychoanalysis, Theory, Poli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Thorpe, C., 2006, *Oppenheimer: The Tragic Intellec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Žižek, S.,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 Žižek, S., 1991,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London: The MIT Press.
- Žižek, S., 1993, *Tarrying with the Negativ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Žižek, S., 1994, *The Metastases of Enjoyment: Six Essays on Woman and Causality*, London: Verso.
- Žižek, S., 1997, *The Plague of Fantas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Žižek, S., 2005, *Interrogating the Real*,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 Žižek, S., 2021, The Vagaries of the Superego, *Elementa. Intersections between Philosophy, Epistemology and Empirical Perspectives*, 1(1-2), 13-31.
- 교신 : 김미혜, 61920,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66, 광주광천초등학교(이메일: tail303@hanmail.net)
- Correspondence: Mihye Kim, 61920, 266 Wolsan-ro, Seo-gu, Gwangju, South Korea, Gwangcheon Elementary School (Email: tail303@hanmail.net)

투고접수일: 2024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2일